

聖句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고 더 균등히 하심도 불가 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심은 아니니이다 (창세기18章25절)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區横須賀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25) 2623番
編集人 吳允台
發行主 華田榮澤

社説 休戰과韓國의立場

한편으로 전투는 계속하면서 재차년 칠월이후 二十二개월 동안 질질 끌여오던 휴전회담은 마침내三八선을 틀라날락한 현전선에서 휴전조인을 하게 되었다. 그 뒤의 일은 정치회담으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그 것은 해방후 미소공위의 되돌아와 불과할것이요 결국이 휴전에 대한 입장과 한국정부의 의견을 무시한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맹렬한 전국적인 반대대모가 계속되고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와 전 국민을 대표한 우리 국민회는 강경하게 반기를 들었다 우리는 삼천전 이때에 우리

悲壯興奮의三年戰果 消耗戰에無人荒地 統一을絶叫하는白衣民族

제2차 세계대전의 연장 혹은 제3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라던 한국전쟁은 내일로 만3년이 넘어간다. 전란은 처음 1년간에 이미 전쟁 4년간의 손실에 비등한 소모를 하고 휴전회담을 개시한것이 2년이나 걸려서 타협되었다는 것이 3천만 강산 단일민족의 국토를 초토화시켜놓고 다시 의화충을 것밖에 없는 절망이 되고말았다 한국측은 이 일이 서러워 휴전 심사조약 체결 당시 부터 남으로소가 충렬기하여『용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거리와 서울에서 고향을 치고 심지어 국련군 사령부까지 노한 파도같이 들며 민중이다. 이와같은 사실들이 아메리카를 비롯한 국제연합 각국들에 전지않은 파문을 이르렀다. 그러나 이것이 好戰민족의 야성적의 침입가 혹은 철 모르는 낙후민족의 욕심에서만 나오는 감정적 고함일까 배운양덕 민족의 저주 받을 요구일까? 이 제 그 원인의 일부를라도 진상을 살펴 보기도 하자.

한국三八선에서 이러한 3년간의 동란은 국제적 약한한 생활전은 아니었다 사실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에서 가장 위기에 빠졌을 때에 유엔과 투르만대통령은 공군 대와 무기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 침략군으로되 불어썩었고 마침내 맥아더장군의 인천상륙과 서울탈환에 이른 큰 호의와 공적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뒤에 미국은 언제나 한국의 처지를 생각하여 통일을 약속하고 명예있는 휴전을 하겠다고 장담한것은 감사히 생각하며 한국군이 거의 의심만의 희생자를 내었고 무수한 전제인과 고아를 내면 서도 싸워온것은 오로지 조국통일의 과업을 완수하기를 바란것이라는 것도 그들이 잘

動亂의破壞慘狀

이러한 세계전쟁의 성격을 가졌었다. 이 3년간에 동원된 병력과 무기와 전쟁비용의 거대한 내용은 그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한국 최남단 제주도에서 부터 울릉도까지의 전장(戰場)이었고 전수의三八線은 내면이나 대군이 내일로 더러 밀고 하면서 人海전을 화염작전으로 광무지를 연드러버렸다. 그 사이에서 양쪽 군대내에는 2백三十餘萬명이 쓰러졌다. 국련군의 발표에 의하면 공산군百八十九萬七千餘名을 손살상·하였다. 그것도 휴전의담이 시작되기전 속 동란발생 일년간에 공산군은 百十四萬餘名을 상설케 하였던것이다. 그 숫자는 제2차 대전때 4년간에 아메리카가 상설한 병정 百十四萬一千百二十名에 거의 비등하다. 한편 국련군은 四十萬六千五百四十餘名의 손해를 받았다고 한다 그속에 아메리카군대가 十三萬〇〇〇명이라 하니 그 나머지 二十七萬名은 한국군병을 주로한 국련군일 것이다. 그러나 국련군측이 四十萬餘名을 알고 있는줄 믿는 바이다. 그리고 미국은 그동안 국내 사정이나 국제관계의 여러가지 압력으로 전쟁을 적극적으로 하지못하고 끌어왔고 결국 휴전을 하게된 사정을 우리가 모르는바가 아니로되 그러나 이번의 휴전은 너무 뜻밖의 일이다 이 휴전은『사실에 있어서 공산측의 승리에 돌아가지고 아세아에서 공산측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한것이다』라고『타임』지의 논조에도 나타난바 있거니와 결국 한국은 통일의 희망을 잃어버릴뿐 아니라 거의 절망적 치명적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통일을 약속한 신의는 땅에 떨어지고 한

二人中一人 韓國被害

이라는 통계를 보면 국련군 7十二萬名의 손해를 주었다고 발표 한것에 차의가 있다. 또 통공력(東軍)의 손해는 六萬餘 전 발표의 국련군은 一二五萬餘를 잃고 공산군의 손해는 七五萬餘의 손해를 주었다한다 그동안에 국련군 항공대(空)가 두하한 폭탄은 四十三萬八千零이다하며 공군이 쓴 탄환수는 二億二千百萬발 로케트탄은 五十六萬三千發를 사용 하였다. 이것도(지난二月까지)는 이 숫자는 제2차대전 때에 아메리카가 일본에 사용한 수에 비하면 폭탄과 기관총탄환은 이번이 조금 적고 로케트탄환은 二배반이나 이번에 더 많이 사용한것이다. 이같이 사용된 탄환의 결과 는 六萬二千四百餘 전차一千二百七十대 화물차九千대 군수물창고八十九개소 요령八十八十三處 九百二十개소 발전소九개소를 파괴 하였다 이렇게 되기까지 三年간에 비현수원인 한국국민의 손해는 남한만 하여라도 九十二萬名이 상상을 당하였고 국민반수 이상이 전제인이 되었다. 국민 二千萬에 비대한다면 두사람에 한사람은 전제인이 라는 계산이 되는것이다. 또 일반시설에 관한 피해는 아세아에서의 지도권은 상실하게 될것이다. 미국 썬시나티주의 원로격이요 지도적 의원인 뎀트씨는 한국에서의 휴전의 해결이 원만히 안될때에는 미국은 연합국의 뜻을 맞추려고 하지말고 U.N을 떠나서라도 한국에 있어서의 독자적인 해결을 짓기를 제안하였다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한국의 휴전반대는 결코 일방적이 아니요 누구의 선동에서 되는것도 아니요 전쟁을 하루라도 계속하면 계속 하는이 만큼 큰 곤난이 있고 그만큼 손해입을 잘 알고도는 물을 흘리면서 감행하는 비장한 민족적 절규요 결사적인

서울 정동 감리교회 목사
김영씨가 지난 六月十二日에

아직 자택한 기별이 없으니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물
심병으로 별세하신 것으로
는다. 씨는 작년 7월에 유
족사와 같이 독일 뮌헨
서 열리는 세계전교대회에
참가하러 가는 길과 돌아오는

경한 비행수는 동란 발생 후 十一個月間에 二十萬대가 죽었던 것이다. 매일 飢餓 六대가 출현한 개산이니 한국 참상은 가히 추상할수 있는 이다.

善總額數十億

국정부의 동란 1년후 발표에
하연 총액은 三十億 팔라에

新教側に譲歩協定

가
기
자
단
에
게
말
하
였
다
는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외전이 전
모장하는 실증들 보여주기를
바란다.

파같이 공산측의 평화는 우
가 말하는것같은 참 평화가
니요 저들의 평화라는 것은
복을 의미하는것이니 저들에
정복을 당하여 죽을바에는
라리 끝까지 싸우다가 죽어
자 우리의 뒤에 오는 자제에
자라지도 참 자유와 평화를 주
자는것이라고 믿는다。

현재의 평화는 세계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면 한국에서만 일어나 정점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거나, 또는 단기에 대했다고 한 전쟁의 해결과 통일은 이때 필저히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반 결과 생길까 두려운 것이니 한국은 비록 적으나 미국 연은 양배마리가운데 일없지 않은 하음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예 정신으로 잃어버린 한마리를 차지에 있는 한국의 실정을 알아서 해결하는 성망이 있기를 바란다

정동제일교회 목사로 단란한
시대에 많은 수고를 하였고
또 세계기독교 구제회 위원장
과 기독교연합회회장으로 활약
하여 작년七月에는 동회를 대
표하여 독일월린겐에서 모이는
선교대회에 참석하여 한국교회
와 아울러 한국의 실정을 세
계에 소개하며 호소하는 귀중
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세
의 형년이 六十二。

WCEE總務室博士聯任

세계교회교육협의회(W.C.C.E)
총무 보좌사는 금년에 十四년
간 섬겨오던 총무직을 그만두
고 아사후(亞細亞州)의 교회에
목회직사로 전임하게 되었다.
후임에는 아나다 주원하교협

軍人禮拜堂獻堂式

부산작년 十一月부터 건축
에 착수하였던 군인회회당은
지난十日에현당식을 거행하였다
현당식에는 동래(東來)에
있는三一會관 장영원 김복규
원장(大령)을 비롯하여 부산
시내각교회 대표 二百여명이
참석하여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 일을 기려하여 부산에
피난 중인 평양 어전도본부에
서는 二萬圓의 현금을 하였다

지난十二日에 말한것인데
리카 아이젠하워는 그

의총무 일은 차별사가 취할
 하였다 차별사는 전변에 연
 단에서 개최되었던 세계기독교
 대회에서 현지위원장(現地會
 長)을 하였고 一九五一年二
 月에서 최근까지는 뉴이에서
 열린회총무의 요직에 있었다
 點字 點經辭典發行
 일본성서협회의 발효에 의하
 연 일본개원전도 회의회(盲人
 協議會)에서는 작년 일년간에
 점자를 위한 점자성경이 七千
 초차되었고 금년 상반기
 에도 벌써 三千권이 팔렸다는
 이책「점자성경사전을」출판
 하리라 한다. 그리고 점자성
 경 단적으로 본전발행물 하
 는데 실행한도 一百五十원인
 것을 그 한일 十五圓에 본래
 고 있다 한다.

말하였다. 나는 아메

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하였고 공산주의자들은 백경하는 선두에서 활동하는 맥캐시氏도 『애드리』의 연설을 아메리카에 대한 오류이라』고 하면서 『아메리카는 미국 전쟁에서 온갖 고난을 받치고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은 한참서편만 아니나 전세계에 평화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였다

이 문제는 쓰련사람들로 하여금 『스탈린이 죽기 전에 자본주의 국가간에 대립은 불가한 것이니라』한 예언이 맞어 살우음을 하게 하였다

關西地方傳道報告會

판서지방회에서는 十五日에 襄面에서 江南에 실시한 辛卯가 進도집회에 관한 보고

판서지방회의 결의였다.

關西地方傳道報告會

(人事)
○ 李範美氏(前廣隆總辦)於六月八日由亞細亞回國
○ 李範美氏(前廣隆總辦)於六月十二日渡英途中曾留地
○ 보령염宜教師 從軍務사로濟州島 巨濟島等地 捕虜收容所에서 韓人捕獲傳道에 수고하다가 廿四日休戰歸國

望臺聲

의 알함이라고 그 세력이 큰 어질것이요 따라서 그동안 남북의 장벽도 더 굳어졌 것이요 특히 이북에는 월남 동포들이 버리고온 불토는 중국 농부들이 와서 차지하고 들어앉게 될것이고 그 상투적 수단인 게리과루대와 무박지 공작이 더욱 심하여 이남의 정치와 사회에 파피와 프랑파 모략을 감행하는 것을 막아낼 도리가 없고 경제 또 총통이 되어 또다시 형제상잔의 피를 흘리게 될는지 모르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 일본의 모신문에 휴전후에는 한일관계가 호전이 되겠다 고 관측한 서울에 가있는 기자의 통신이 기재되었다

그 이유로 앞으로 불가불 할공관계의 태세로보아서 일 본과 손을 잡아야 할것이라 고 유엔이 청병을 하면 외 로올테니 불가불 일본을 친하여야되리라 주장인가

○ 갈미교회의 대표적인 목사 중에 한사람인 김인영씨가 갑자기 별세한것은 매우 유감이다 인물이 없는 우리 교계에 그만큼 경험과 역량을 가진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감리교회 아니라 전교계 와 온 나라의 손실이다 살 아서 서로 야끼고 서로 위 하는 생각이 간절해진다。



望臺聲

六·二五事變三週年을맞아

休戰反對國民蹶起大會

일본에 있는 우리 민간주최로 六月二十五日正오十二時부터 공산군의 불법남침으로 목발한 허비야공회당에 열리는 일본교 六二五사변삼주년을 기념하며 쉼의 많은 출석을 기대한다. 전반대를 아울러 국민을기대회

救國民生의 길은懺悔信仰

金牧師 西南傳道에 猛活

下關교회에서는 지난 八·九 양일간 부인전도회 연합회에서

總會修養會

재일 대한기독교총회는 오는 七月七日부터 十三일까지 일주 간 교역자수양회를 개최한다. 장소는 神戸市水區塩屋町八七 에있는 關西성서학교에서 개최한다. 강사는 사와무라고로 고지마이스케 두목사다.

南北統一實現第三段階

休戰協定은武力의破綻

총회가 예열과 달리 금년수 수양회를 교역자에 한한것과 장소 목회에만 분명한 교역자들 만이 함께 모여 교회발전전에 관한 공동연구를 주로 하려는 점에 있다고 한다. 바로 수양회 직전까지 맹렬히 전개되고 있는 전체 교회 신도배가운동 도 끝날것인데 재일교포교회면 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들도 연구토의 될것으로 보인다.

로—드救世軍中將歸國

六·二五戰亂當時拉致에서

六二五동란(六月二十五日動亂) 영국 아빙은 空港에 도착하였 이 이어나던때에 개성에서 남 치되었던 전 구세군사령관(前 救世軍司令官) 로이드중장(그때 에는 소장)의 소식은 알길이 없었으나 영국정부가 쓰련정부 를 통하여 교섭한 결과 최근에 무사히 석방되어 영국에 송환되었다고 구세군 만국본영 에서 발표하였다.

처음사에서「人生의 최대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人生은 모든 행복을 찾아헤매나 잘못 된 행복 즉 행복과는 상극인 불행」을 맞이하고 말았다」하시 고 그 實例에 있어서 한 국민의 슬(淚)마시는것을 말 할수있다고 하시면서 人生은 행복을 찾다가「人生의 최대의 비극」을 이루고 말았다고 지적하여 울인 청중 八十여명 등등의 반응을 재촉한후「주예 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 궁 극의 절망에서 人生이 다시 살길이 있다」고 하시고 우리 교도들이 최대의 비참에서 소 생할 오직 한 길은 人生의 불가능한것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부름에 있다고 결론을 지어 크게 감명을 주었다.

우들의 반을 지어 인간 일본교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방 며들시에 정경전도사의「강연」이 있었다.그 요지는「영리한 가룟유다(男子)의 명철한듯한 경제관련과 미련한듯한 女子 마리아의 참회하는 신앙을 대 조 설명하여 오늘날의 여성은 이러한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허무러져 가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조목 을 제시하고 그런 부녀들의 활동이 있을때에는 그 가정과 교회와 국가뿐만 아니라 현대 위기의 세계전체가 바로 설수 있다」부인들의 사명은 미약 한것 같으면서 중대한 것이라 고 말하며 감화를 주었다.

이제 휴전에 대한 재일교 포들의 동향은 어떠한가고 묻는다면 세가지로 말할수 있으리라고 본다. 첫째는 대한민국 측과 호 흡을 가지하기 위하여 휴전 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둘째는 북조선 측과 호흡을 맞추려는 휴전측진을 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셋째는 이

런 이데올로기 관념과 관계 없이 인도적(人道的)입장에 서 전쟁자체를 반대하고 협 상으로 조국통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본다. 첫째와 둘째의 견해와 주장 은 여기서 다시 말할것도 없 으리만큼 오늘날까지 싸워온 사실로서 누구나 잘 알수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휴전을 반대하는 사 람들은 남한측이 휴전을 반대 하는 관념이 크게 관계 되어 있고 북조선공산계 측은 민족 보다 공산주의 정책으로 보아

정한것 보다는 건강하여 보이 며 평정한 모습은 환영하는 무 리에게 안심감을 주었다. 맨처음에 로이드부인과 그의 아들 아사사 누이들의 감 격된 인사가 있었고 다음으로 참모총장과 로이드중장과 다수의 사관들의 인사가 있었다 로이드중장은 그 길로 환영 연설에 참석하였는데「귀국도중 에서는 간곳마다 친절하신 대우 를 받았다.그러나 수용소에서 입고있던 옷을 온 사람들을중에 는 비행기 타기를 거절한이들 도 있었다」고하며 아빙은에서 는 크게 환영을 받았다고 하 는다.이 말이 끝나자 영국의 무성 비서관 스를씨는「이번 귀 국 전후를 통하여 국제정세가 더욱 이해(理解)되어지기를

神父別世의詳報

한국의 신부 교황성 사절 박르 리크 드 뮈르가 六二五동란후 공산군에 납치를 당하였다가 형제하였다는 소식은 이미 보도한바와 같고 최근 북한에서 석방되어 전연에 도착한 오세니콜·도마스·리판神父의 중언외의하면 그 상보(詳報)는 다음과 같다.

뮈르神父는 공산군에게 납치되어 북한으로 가는 도중 서울에서 마일 길을 거가서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一九五〇년十一月二十五일에 폐렴으로 별세하였다.

이 말을 전하는 리판神父는 강원도 춘천교구장으로 있다가 공산군에게 포로되어 三년간에 영국정부에 소련의 위성국으로 석방되어 최근에 석방된 사람이다. 리판神父 외에도 여섯사람이 석방되어 영국에 도착했다. 리판神父는 六二五동란 직후의 사절에 대하여 六月二十五일은 주일이었다. 공산군이 갑자기 습격하여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채도 가지지 못하였는데 동지자 리판神父가 남몰래 내 영구에게 기도서 한책을 넣어주었기에 그후 우리

열사들이 이책을 쓸수 있었다. 그러나 구금생활 중에서는 미사들 드릴수가 없었고 그책을 쓰는 데도 연가 교회에 나간다는 일은 한번도 못하였다. 그러나 선교사들을 끼리는 교회(告解)를 할수있는 비밀의 물령을 만들고 로마리오는 성심으로 불렀다. 그 시간의 열마나 큰 위로였을가 하는 가히 상상할수 있을것으로 한다. 석사에 있어서는 이렇다 말할 수 없다. 석사는 하로세 세번씩 이 었는데 그것은 대개 수수방이 었다. 중공군이 드러난후는 그것에 약간 변동이 있었으나 리판神父는 다시한번씩 편책올 열어주었기에 그후 우리

열사들이 이책을 쓸수 있었다. 그러나 구금생활 중에서는 미사들 드릴수가 없었고 그책을 쓰는 데도 연가 교회에 나간다는 일은 한번도 못하였다. 그러나 선교사들을 끼리는 교회(告解)를 할수있는 비밀의 물령을 만들고 로마리오는 성심으로 불렀다. 그 시간의 열마나 큰 위로였을가 하는 가히 상상할수 있을것으로 한다. 석사에 있어서는 이렇다 말할 수 없다. 석사는 하로세 세번씩 이 었는데 그것은 대개 수수방이 었다. 중공군이 드러난후는 그것에 약간 변동이 있었으나 리판神父는 다시한번씩 편책올 열어주었기에 그후 우리

서 이 전쟁은 이만큼 하여도 승리적인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여 휴전을 지지하는것 같다 셋째로 말한 전쟁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쟁당초부터 비판적이었고 기피있었는데 일본의 전쟁정해 양식을(良識)이이러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더욱이 이번 전쟁이란 것의 성격으로 보아서 결국 전쟁의 처참한 싸움은 인간으로서 용서 못할 일이라고 보아오터바 지금에도 휴전을 할수있다고 하로라도 속히 전쟁을 끝내고 피차 화합하여 협상으로 통일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견해는 있는 듯하나 그들은 선외(線外)의 분자들로 한국전쟁을 가슴

아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이미 남편자들이다. 이상 세가지 견해를 가진사람들 중에서 몹시 피곤한것은 제三的 입장에 속한사람들이다 최우에서 공격을 받는 때문이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의의를 발견하고 오로지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들의 휴전을 자기들의 승산으로 지지하고 다음번 개혁을 세우는 음모자와 같이 아니하고 휴전을 반대하고 무력으로 북벌자는 이들같은 중오의 용기도 없지마는 책백한 희망에도 감진한 힘이있다

그들은 단순한 공명심에 갇혀 그런 일을 한것이 아니다 인간들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일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신중한 연구와 지식을 모아 실행하고 그 경험을 신중히 반성하며 연구하여 전진만 계속한 결과 아홉번 만에 이룩되었다. 주저 앉아서 태산이 높다고 한숨만 쉬지 말고 쉽게 낙심 실망 포기 하지 말고 역경(逆境)에서도 희망을 갖고 반복하면서 전력을 기르려다면 에베레스트 이상의 험한 인간 마음의 사랑과 승리의 표징 십자가를 세울것이다. 한국민족의 젊은이들의 기세가 이같이 자라나서 험난준령 같은 역경을 극복하는 날도 멀지 않을것이다 이에 표징이 되어지면 좋겠다(一)

본著者와年代關係 이 책의 저자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학설이 있으나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도요한의 쓴것이라고 볼이 타당함을 안다 기록한 시기에 관해서는 분명한 기록이 있으나 기원九十年경에 요한복음을 기록한후에 쓴것이다.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그의 소아세아방면에 있는 여러교회들에 이 편지를 써서 보냈을 하다. 二本書의體裁 이 책은 권고하고 순전한 사상을 간단명료하게 무려노는 것이다. 문장은 어린이가 라도 이해할수있도록 쉽게 되었다. 그러나 그속에 깊은 오묘한 의의는 경건한 성도라도 오히려 충분히 이해하기는 심원한 점이 있다. 기도하면서 읽으면 그 오묘한 뜻의 사실을 체험하게 될것이다. (二) 이 편지는 이미 전리를 아는자들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피리를 일일이 말하지 않았으나 복음과 도덕과의 중심관계를 명확하게 말한 점에는 요한복음과 함께 신앙성경중에 으뜸을 차지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성경의 중심 뜻이 이 편지에서 유감없이 종합됨되어 신앙을 역설하는 바울의 편지와 행위를 중요시하는 야고보서와 는 모순된것 같기도하나 그런것이 아니라 사물의 양면같이 일체된 것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인정할수 있을것이다. (三) 나이 높은 사도요한은 이 편지 받는사람들을 자기 자녀같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며 기쁘고 다운 권위와 사랑을 가지고 영속하면서도 차근차근하여 두는 편에 실중도 없게 가르치는것은 다른사람의 따르지 못할것이다 (四) 영적인정과 도덕적인 이 야기가 풍부하다 예를 들면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사랑과 미움 생명과 죽음 하나를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하

이 전쟁은 이만큼 하여도 승리적인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여 휴전을 지지하는것 같다 셋째로 말한 전쟁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쟁당초부터 비판적이었고 기피있었는데 일본의 전쟁정해 양식을(良識)이이러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더욱이 이번 전쟁이란 것의 성격으로 보아서 결국 전쟁의 처참한 싸움은 인간으로서 용서 못할 일이라고 보아오터바 지금에도 휴전을 할수있다고 하로라도 속히 전쟁을 끝내고 피차 화합하여 협상으로 통일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견해는 있는 듯하나 그들은 선외(線外)의 분자들로 한국전쟁을 가슴

아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이미 남편자들이다. 이상 세가지 견해를 가진사람들 중에서 몹시 피곤한것은 제三的 입장에 속한사람들이다 최우에서 공격을 받는 때문이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의의를 발견하고 오로지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들의 휴전을 자기들의 승산으로 지지하고 다음번 개혁을 세우는 음모자와 같이 아니하고 휴전을 반대하고 무력으로 북벌자는 이들같은 중오의 용기도 없지마는 책백한 희망에도 감진한 힘이있다

그들은 단순한 공명심에 갇혀 그런 일을 한것이 아니다 인간들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일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신중한 연구와 지식을 모아 실행하고 그 경험을 신중히 반성하며 연구하여 전진만 계속한 결과 아홉번 만에 이룩되었다. 주저 앉아서 태산이 높다고 한숨만 쉬지 말고 쉽게 낙심 실망 포기 하지 말고 역경(逆境)에서도 희망을 갖고 반복하면서 전력을 기르려다면 에베레스트 이상의 험한 인간 마음의 사랑과 승리의 표징 십자가를 세울것이다. 한국민족의 젊은이들의 기세가 이같이 자라나서 험난준령 같은 역경을 극복하는 날도 멀지 않을것이다 이에 표징이 되어지면 좋겠다(一)

본著者와年代關係 이 책의 저자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학설이 있으나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도요한의 쓴것이라고 볼이 타당함을 안다 기록한 시기에 관해서는 분명한 기록이 있으나 기원九十年경에 요한복음을 기록한후에 쓴것이다.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그의 소아세아방면에 있는 여러교회들에 이 편지를 써서 보냈을 하다. 二本書의體裁 이 책은 권고하고 순전한 사상을 간단명료하게 무려노는 것이다. 문장은 어린이가 라도 이해할수있도록 쉽게 되었다. 그러나 그속에 깊은 오묘한 의의는 경건한 성도라도 오히려 충분히 이해하기는 심원한 점이 있다. 기도하면서 읽으면 그 오묘한 뜻의 사실을 체험하게 될것이다. (二) 이 편지는 이미 전리를 아는자들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피리를 일일이 말하지 않았으나 복음과 도덕과의 중심관계를 명확하게 말한 점에는 요한복음과 함께 신앙성경중에 으뜸을 차지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성경의 중심 뜻이 이 편지에서 유감없이 종합됨되어 신앙을 역설하는 바울의 편지와 행위를 중요시하는 야고보서와 는 모순된것 같기도하나 그런것이 아니라 사물의 양면같이 일체된 것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인정할수 있을것이다. (三) 나이 높은 사도요한은 이 편지 받는사람들을 자기 자녀같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며 기쁘고 다운 권위와 사랑을 가지고 영속하면서도 차근차근하여 두는 편에 실중도 없게 가르치는것은 다른사람의 따르지 못할것이다 (四) 영적인정과 도덕적인 이 야기가 풍부하다 예를 들면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사랑과 미움 생명과 죽음 하나를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하

요한일서

(新約) (講解)

求道者

이것 하나만의아름과 악마의아름을 드러서 서로 대조하는 태도는 극단한듯 하면서도 깊은 사상을 포함하여 진리를 명백히 하려한것이다 三本書의目的 이 편지의 목적은 믿는자로 하여금 이단에 유혹됨이 없이 올바른 신앙에서 서서 그리스도교도덕을 행하게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세상에 있으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려한에 있다(一五:13)

四 本書의體裁 (一) 당시의 이단 잡설에 행하여 때때로 교회들을 침해하였다. 어떤자는 예수를 우리와같은 죄인이 라고 설명 하며 주장하였다 또 다른자들은 예수·의 인간성을 부정하고 예수의 지상생활이란 것은 유령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사도요한은 이런 설명을 부정하고 예수는 영원전 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던 거룩하신 존재로서 마흔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던 이라고 주장하여 복음신앙의 기초를 굳게하였다 (二) 이단자들은 지식만을 과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은 도덕무용론을 주장하였다. 요한은 이런것에 대하여 죄는 어떤자가 범하였던지 간에 불법이라는 것을 단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은혜를 감사하고 사랑과의를 행하여야 할것을 여러번 되풀이하여 가르쳤다(三:4)

(五) 本書의 內容分析

一 머리말	一—4
二 하나님은 빛이다	一五—二八
三 신앙생활의 특징	一五—二二
四 빛과 어둠의 행함	一五—一〇
五 구주를 앙망함	二一—六
六 사랑의 실행	二七—一一
七 악을 모방받지	二二—二八
八 하나님은 사랑이다	二九—四五
九 신약과 사랑과 義와의 관계	二九—四六
十 대환 설명	四七—五二
四마음	五三—二一

알벨트 · 슈와이첼

그는 一八七五년 독일국경에 있는 한 작은 도시인「카이슬스·뵘그」에서 육사의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니 지금 은 연세가 七十八세일것이다.

그는 우선 신학자요 그리고 한 상당한 철학자요 동시에 위대한 음악가요 또한 유수한 의사이다. 그 어느 방면에 있어서나 그의 업적과 뛰어나는 인격은 진실로 허한한 광채를 이룬다.

개의 문화를 가지게 될것이다. 동시에 그의 이름은 세계의 음악계에 있어서 특별히 빛나는 음악의 유일 무이한 음악가 연주자와 또 연구가로서 그의 명저(名著)인「음악가요 시인인」(名著)인「음악가요 시인인」(名著)으로 인하여 빛나는 이름으로 더부러 그의 음악이 세계에서 멀하지 아니하는 한 영원히 남아 있을것이다.

가지고 있으나 특히 그가
 립이 높아졌은 一九〇四
 二十九세때에 아르리카에 불령
 (佛領)「공고」북쪽「가분」지
 방에 있는 흑인의 곤궁한 형
 편과 비참한 정형을 알고 감
 이 뜻을 결단하고 의사로서의
 수업을 마쳐자 곧 사회의 온
 갖 영애와 지위를 버리고「깨
 데」적 정신과 심자의 정신
 을 세우는 실천적 행로인으로
 서 一九一五年이후에 적도착하
 그 명저는 맛하 음악의
 학저(美學的) 실천적연구(實踐
 的研究)로서 맛하 연구에
 로운 기원을 지었을뿐만 아니
 라 저평은가「로만·로만」이
 세계 예술상에 일대사건으로
 취급한 모양으로 널리 유럽의
 예술문화위에 음으로 양으로
 커다란 영향을 준것이였다. 전
 어도 근대의 음악 예술의 추
 발점은 그의 손에서 기초가
 세워졌다고 할수있다.

6년)와 또 그리스도
 의(예수)에 대한 학적인 기
 초를 세운『예수전연구』(一九
 〇六)와 또 그리스도

이 가장 완전이 가장 높게
표시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올리적 신비주의
사물론(終末論)으로 설명한「사
신학계」에서 그는 발자
남겼다고 할수있다。

教授結果の測定

魯安理

(五)

2 교회회의에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기관이 많다. 우리는 이러한 기관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향해서야 한다. 보류학교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기관일 것이다. 교회원들은 이런 학교에 관한 노력으로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데 사실 이것을 행하고 있는가? 또 교회의 여러가지 비용을 잘 절약하여 쓰는가? 이 데로는 비단 교회에서만 필요할 것이 아니라 모든 건설적 진보적 기관에서도 신도에게 요구되고 있는 일이다. 필요 없이 모든 조직과 기관에 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므로 나와 소용 없는 일이다. 소소함을 하지 않더라도 종교인된 사람은 이러한 건설적 기관에 대하여 참다운 동정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는 것이다.

3 여러교들이 마치 한사람과 같이 협력일치 하지 않는다면 속한 진보를 볼 수 없다. 만일 교회학교나 노동조합이나 동일조합 같은 기관이 한가지의 진보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집중한다면 이가령 공평한 서를 위한 운동 혹은 아동의

학력측정

그 결과 는 놀랄만한 것이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던 그러한 진보적인 기관을 지도하던 여서 인간사회의 복지를 추진시키는 사업에 서로 협력할만한 케 한다면 이는 실로 위대한 일인 것이다. 교회학교 학생들인 열마나한 범위까지 그 종교적 영향을 파급시키고 있는가를 보아도 그들의 종교적 발달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 구두 시험. 이것은 일종의 학력 측정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1. 시험 시험방법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몇가지 대표적인 것만을 들어 보련.

傳道欄

몬져그나라의를구하라

그는 무엇 생명을 생명으로
서 신성하다고 하는 세계관에
서 일월 생애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의 체험만이 사람의 사
고(思考) 중에서 보편적 윤리
(普遍的倫理)로서 기복을 이
루어저야 할 것이요 그러한 인
간성사상(人間性思想)으로 개
인과 사회가 윤리적으로 완성
된 것이 곧 문화라고 설(說)
하는(생(生)의 경의(敬畏))
의 철학을 주장하여 그 대저
작인(四部) 사부가운데「문화의
철학과 정신」과「문화와 윤리」
의 두 부를 해대 발표하였으니
「생(生)의 경의와 세계관」
은 이미 앞의 글과 붙여서 간행
을 기다리고 있고「문화와 윤
리」는「문화국가」라는 제목으로
출 예정이라고 한다。
그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문화(文化)라는것을 저 사람이
의 머리와 사람의 손으로 된
인위적문화(一人爲的文化)가
아니요 자연적(自然的文化)이니
그의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자연물 윤리로 통하지 아니하
고 항상 자연에 직접 사권수
있는 문화라는 것이다。」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것에도 있고 인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어서 비로소 한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할수있는 것처럼 이 사회에는 잘사하는 사람도 있고 진공도 있고 농부도 있고 매질하는 사람도 있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학자도 있고 관리도 있어서 비로소 서로서로 어울려서 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역량과 재능이 같지 아니한 사람들을 세상을 보내셔서 각각 자기 재능과 본수에 적당한 직무와 직업을 가지게 하여서 거기에 힘을 쓰도록 하신 것이다.

자동차를 타는자도 있고 운전하는 자도 있고 다스리는 자도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도 있고 고용하는 사람도 있고 고용을 받아 일하는 사람도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농사지은 쌀을 사먹는 사람도 있고 각각 자기의 하는 일과 자동차를 탄다고 반드시 좋은 사람이 아니요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반드시 낮은 사람은 아 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낮고 쌀을 사먹는 사람이 높은 것은 아니라 사람이 높고 낮은 것은 그 직업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마음과

제임으로 행할수 있는것이이다.
한 할라쓰에서 구약성서의 영
웅들을 연구하였다. 이럴 때에
는 모든 사람 앞에서 들는
동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면
서 이야기 할수 있게 되면
성공이라고 볼수 있는것이이다.
그렇지 않고 보통 문답 형
식으로 시험하는 법도 있다.
그밖에 또 다른 여러가지 방
법으로 변화시켜서 할수도 있
을것이다.
(나) 필기 시험. 이것도 여러가
지 형식이 있다.
(A) 보통 필기 시험은 누구나
다 잘 아는것이이다.
(B) 정오(正誤) 테스트. 글을
써 놓고 학생에게 그 옳고 그
른것을 지적시키는 방법이다.
예컨대 옳은것에는 O를 치게
하고 틀린것에는 X표를 치게
한다.
(예)
O 모세는 백성들을 애급나라
로부터 인도해 내었다.
X 바울은 십二字도 중 하나
이다.
(다) 복수(複數) 테스트 이것도
여러가지가 있다. 여러가지 문
제를 내어 그 중 옳은것을
표하라 하는 법 혹은 옳고
틀린 양편에 각기 다른 표를
치라 하는법.
(예)
다음 문장에서 옳은 말에
선(線)을 그으라.
다윗 마리아 요한 온 예수
에게 기쁨을 부었읍니다.
참새기 시편 마태복음에는
주기도가 있읍니다.

香氣 아름다운인수값기

최근에 북부인도에서 생긴 일이다. 몇해전에 「시이크」교도가 그 불구대천의 원수 즉 「교적」(敎敵)이요 「정적」(政敵)인 회교도의 당시 七세인 「비비」라는 계집애를 붙들었다. 그 때에 혹은 「죽여버려라」고 하고 혹은 「우리교도를 만들자」하는 의견을 물리치고 그 주장인

「타라 빙」은 「나는 이 아이를 그대로 회교도로 기르겠다. 허마라야의 현 눈같이 깨끗하게 기르다음에 제 부모에게 돌려보내서 저 사악한 회교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

이요 임기응 변기까지 회교로 법대로 가르치며 「타라 빙」의 집에서 감히 감히 자라났다. 그리고 결혼 연령이 되었으므로 인도정부에 이탁하여 「타라 빙」을 주어서 제본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애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장엄에 「적은것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것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근심하는것보다 나으니라」나물을 먹고 서로 사당하는 것이 실천 소를 먹고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하였다. 참 행복은 돈이나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고 마음에 신념과 신앙을 가지는데 있다. 돈이 있고도 신앙이 없고 예수를 찾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참 안심과 참 행복이 없다. 아모 것도 없어도 하나님앞에 마음

이 깨끗하고 신앙을 가지고 「영리하고 무릇을 먹을까 무 그리고 자기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의 마음을 참 행복과 참 기쁨이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내 소유라고는 집안간이 없고 「여리 물곳이 없이」 동서남북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때로는 산에서 밤을 지내고 어떤 때는 시장한 일도 가끔 있었으나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중하는 자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자 복이 있다. 하시고 돌아가서는 남의 무덤에 묻히셨으나 십자가 상에서 「다 일우었다」고 최후의 발언을 하셨다.

옛날 도읍지로서의 개성은 지금 여기가 高麗의 그 무엇이 있었든 곳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다. 하어도 파연은 아니다. 역사상에 그렇게도 유명하였던 고려의 예술문화도 그 거개가 현재는 허무러지고 깨어지고 흐미하여져서 지금은 오직 민중의 현실 생활만이 다 고려시대는 그 특장이 한국 민족의식과 사상이 분명히 통일 확립한 시기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한 한국 민족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여 한민족을 명확케 한다고도 할 수 있는 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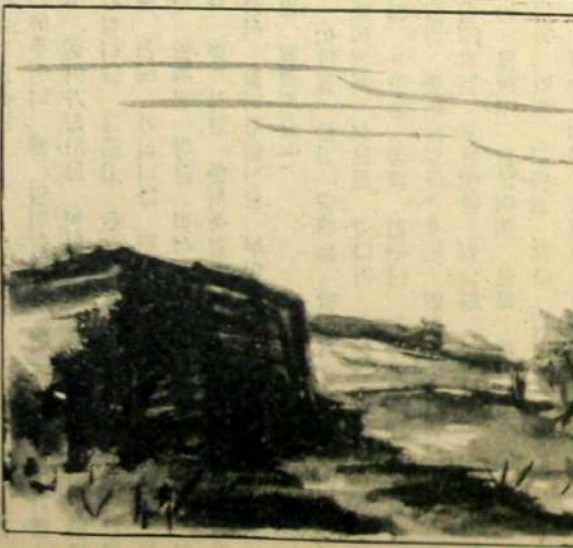
動亂二週年에 名古屋教會集會

名古屋교회에서는 신도배가전 도 무렵에 따라 十七日 밤 부터 二十一日까지五日간 특별 부흥집회를 개최한다(十三日記) 강사는 東京교회 오유태목사 신데 五日간의 집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고 금년 가을에는 총회정 기총회도 그곳에서 개최할 것이고 현당신도 총회전후에 있을 것이라는 데 이번 집회는 조국 동남집회의 성과에 三주년전 주간이기도 하여 크게 기대하며 교우들은 최선의 노력을 약속한다.

지금은 곡식 밭이되어 버린 만월대(滿月台)에 가까이 발거름을 멈추는 이는 그윽히 이런 역사적 감흥에 잠길 것이나 그 감격에서 무엇이 이러 나고 어떤 행동과 결말을 가져올가가 그 유서 깊은 古都의 말없는 의의가 양말가 한다

매일 오전 다섯시 부터 한 시간은 조천기도회(半天)로 모이고 오전 열시반 부터 열두시반 까지 두시간은 성경 공부한다. 오후에는 매일 나고야 교도 부락에 교대로 전도반을 지어 집중전도를 하고 밤 전도강연 아내를 한다. 이 전도에는 여섯반을 구성하였는데 전 교회 신도를 三十七名の 헌신적인 레이 리-다가 중심으로 인도 하리라 한다.



滿月台趾

유명한 영국 해군제독 벤슨 장군은 「나는 비록 작은 단정 (端整)한척을 말을 지라도 영국과 전 함대를 말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중성을 다할 각 요」한일이있다. 우리는 결코 내 직업을 부끄럼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못 잘 입고 앉아 있는 소위 신 사라는 사람보다도 노동복을 입고 공장에서나 밤에서나서서 일하는 사람이 도리어 귀한 것이다. 우리는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우리가 세상에 날 때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 죄악의 길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에게 대하여 은혜를 감사하고 성기는 뜻으로 중성을 다 하고 힘을 다하여 일하므로써 내 본분을 다하는 데는 누구에게나 지지않고 뒤떨어지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나 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광을 나 내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일우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혹은 목수가 되고 혹은 철공이 되고 혹은 장산꾼이 되고 혹은 교사 되고 혹은 목사 되고 혹은 군인이 되고 혹은 관리가 되어서 각각 중성을 다할 뿐이다. 노동은 불행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 노동하고 농사짓는 것은 가장 신성한 것이다. 「악마는 도시를 만들었고 하나님은 농촌을 만들었다」는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라고 할수있다. 옛날 모든 위인과 성현은 노동을 귀하게 여겼다. 성경의 신앙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도 노동자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천히 목수 일을 하였고 그 제자들도 거의 노동자가운데서 택하였고 사도바울은 천히 천막짓은 일을하면서 전도하였고 그때에 노동을 낮게 여기고 게으른 신자를 경계하여 「너희중에 일하기 싫어 하는자는 역시 도 말라」하였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깨끗한 생활을 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는 마음의 안심과 평화가 있는 것이다. 비록 살림이 가난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행복된 생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다면

張利郁

이제 한두가지 경험담을 온
저 말씀드리려 합니다. 몇해전
에 내가 학교일을 관재하고 있
을때에 지나온 일 가운데 한가
지를 말씀드리렵니다. 그때
생들의 심리가운데는 가장 우
려받았던 어떤 레도가있었던것
을 기억하고있읍니다. 특히
學年入學時期가 되어서 모든
학교에서 入學試驗을 받게 될
때 학생들은 試驗準備를 잘
하느니라 하는것이오 또 大
中學校에 어느學校에고가서
其入學試驗을 치르는것입니다.
그러나 이學生들中의 大多數는
試驗成績이 우수하다고해서 반
드시 入學되는것으로 믿지않는
것이였읍니다. 이러한 心理는
學父兄들에게도 똑같이 있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試驗成績이 좋으면 물론入學
이되야 하겠지만 어디 이世
上이 아직 그였읍니까』하고
學生이나 其父兄이나가 다같이
이社會를 믿지않는것이였읍니다
그후에 나는 사정상 親자동
차 한대를 마련하게 된일이
있었읍니다. 이 親자를 운전할
운전수를 작정하고 또 그를
유해서 이 親차사용인가청원서
를 당국에 제출했읍니다. 이

운전수는 하로건너 한번씩은
찾아와서 허가가 나왔읍니까하
고 묻습니다. 그때 좀 기다려
보라고하면 그는 변변히 내가
세상실정을 도모지 모르는것으
로 여겨서 알답하다는것이 '참
한 기다려보시구려' 그 허가가
그저 나을줄 아십니까. 그저
찾아도 다니구도 무엇 좀
어떻게해야됩니다.』하는듯이
말을 했는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이 자동차사용허가가 나온
것을 보고는 그는 '그래 무엇
어떻게 좀 하신게구려?' 하였
읍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었
다는 나의 이야기를 그는 바
로 들을라고도 아니하고 아조
이상하다는듯이 만신반의한것
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읍니다.
무슨 일이나 이와같이 법률과
규칙이 하라는대로 해서 그것
이 그대로 되는것을 볼때에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않고
오히려 이상히 여기고 혹은
예외로 생각하는것이 그 실정
이였읍니다.

그후 나는 또 이 親차를
사용하기위해서 매달 휘발유를
청원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운전수와같이 의논
해서 앞으로는 한달동안에 이

한글 표 실 (제11시간) 張 曉

제 2편 말본에 맞도록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을 그
말소리대로 말본에 맞도록 적
어야 한다는 것은 먼저 말하
였습니다. 여기서는 말본을 다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
고 낱말의 맞춤법을 바로하는
데 필요한 것만 간단히 말하
겠습니다.

／ 임자씨(體言)와 토
(7) (L)
사람이 사람...이
책이 책...이
연필이 연필...

『사람이....』하는 말은 그
것이 그대로 한 낱의 말이기
는 합니다.마는 자세히 살펴
보면 오른 쪽(L)에서 보이
는 것과 같이 『사람·책·연필』
에 '이'가 붙어서 쓰이는 것
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책·연필』을 『임자씨』라 하고
『이』를 『도』라 합니다.

(／) 임자씨란 무엇인가?

우리가 쓰는 이 수없이 많
은 말은 그 성능(性能) 곧
그 말의 쓰이는 특성과 그
말의 뜻을 나타내는 힘을 따
라서 크게 갈라(分類하여)가
지고 생각하여야 할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임자씨
라 무슨씨라 하는 것은 분류

떠하다 어찌한다』에 해당하는
말인 『떠다·분다』하는 말의
주제(主體)가 될 것이요, 입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임자말』이라 합니다.

또 『떠다·분다』들은 그 임자
(말)의 어떠함과 어찌함을(되
어 있는 상태나 움직임)를 풀
이(設明)하는 말이므로, 그것
을 풀이말』이라 합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모
든 낱말을 분류하여, 임자말이
되는, 임자말로 쓰이는 낱말을
임자씨(體言)라 하고, 풀이하
는 말로 쓰이는 낱말을 풀이
씨(用言)라 합니다. 이 밖
에도 매김씨, 어찌씨...하는 여
러 가지의 갈래가 있으나, 다
음에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말이 임자말
로 쓰이는가?—어떠한 말이
임자씨인가? 위에 말한 대로
『무엇이』의 『무엇』에 해당하
는 말이니, 곧 사물(事物)의
이름인 말이 임자씨(體言)입
니다.

사람, 개, 집, 하늘, 세계, 바
다, 무궁화, 휴, 불, 사람, 생
각, 여름, 오늘, 낮, 조선, 금
강산, 서울, 세종, 한글, 나,
당신, 이것, 하나, 물, 열, 첫

째, 둘째, 세째...
이런 것이 다 임자씨입니다.

古詩調鑑賞(1) 道

李 滉 作

우부도 알며 하거니
거 아니 쉬운가 하시니
성인도 못 다 하시니
고 아니 어려운가
임거나 어렵거나 중에
남는 줄을 몰라라
(註) 우부。(무식한사람)고
그것(도)에 △쉽기도하고
어렵기도한것을 몰라 행하
는동안에 어찌 행했다.
古人도 남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보
고 인은 못 보아도
에든 길 앞 에 있네
에든 길 앞 에 있거니
(註) 에든길. 행하든길
에고. 가고 행하고
당시에 에든 길을

자동차를 어느정도도 사용했
을 개산해가지고 그때 한달에
한『드림』을 청원했는것입니다
그런데 그후에 바람둥이서
나아갔는데 이것은 한드림이아
니오 오직 우드림뿐이었읍니다
市청의 關係를 찾아가서
사정을 물어보았더니 그의 대
답은 이렇게 성원한 수량의
절반정도도 해당이된것은 대단
히 드물 일이고 보통으로는
청원수량의 삼분의 일정도나
혹은 四分之一 정도라고하
면서 그것으로서 만족하라는것
입니다 이것은 그때 휘발유가
안 六·二五사변이 나날까지

두 부류의자가 아너로
를 청원하는 사람들의
자기네의 실(事實)을
해당한가지고 의뢰를
하는가 있는고도 그들이
있는말 그대로 줄수있다는것의
있읍니다 사정을 잘 이해할수
있었읍니다 그다음 나는 市長
室에 찾아들어가서 절대로 사
용량이상으로 청원하지말았어
니 이것을 믿고 청원하는말대
로 해당하여줄것을 부탁하였
는데 그는 이것을 쾌락하였
읍니다 그래서 그후 한三개월
나는날까지

마음은
사람이
일지
마소
밥먹
(나)

몇해
어디
이제
이제
연대

한편 한쪽편을 말아온일이
있었다.
저를 말씀드린 한두가지 경
험들은 우리사회에 있어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이요, 오솔의 일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서로 서로 믿을수없이
있었으니만큼 다른사람을 의심
하고도 처음부터 애야 믿으
라고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옹호한
사람의 할일도 알지못하였을지
나. 그렇기때문에 무슨회를 물
론하고 가령 오후 2시에 개회
한다고해서 2시정각부터 출석
한 사람이 있다고하면 그는 사

바려 두고
다니다가
돌아오고
돌아오나니
음 마르리
을 말함,
다시(당시에 그때에) (한
종안) 다니다가 방향함
을 말함,
돌아오고. 돌아왔는고,
오나니. 왔으니, 연대. 연대,
아름마르니. 생각말리라,
람을 아
하자스라
되어나서
못하면
다르라
하자스라. 합시다,
지금. 올지만, 마소. 말피소
고갈 (이판)

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 말에
어떠한 토가 붙었더라도 본디
의 맞춤법대로만 적어야 합니
다. "사람"으로 된 말은 언
제나 "사람"으로 적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꽃"은 언제
나 "꽃"으로만 적고, "꽃, 꽃,
꽃..."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직업으로 보아 농민 노동자
상인...하고 크게 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덩다. 바람이 분다.
이 짧은 말은
무엇이 어떠한가 (어찌한다)
하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인 "날
이, 바람이"는 그 아래의 "어

한을 지저서 거게 출석한것이
루고려운일 혹은 후회할일로
느껴지게되는것입니다. 좀더 영
리해서 "두사람"고 했지만 두사
인 지 세사람인지 누가 아나
너저히 잘못 세사람이면 왜"
하고 어느회야나 뉴욕에서 출
석하는것이 정작은 사람 경험
있는사람이 하는일도 알지못하
는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러할때 "이
것은 좋은 물건입니다"한다고
해서 그대로 믿었다가는 큰코
를 다치는 일이 많으니만큼
"이것이 구상품 일가루百元

小説 새벽종 (十六)



독풍은 북에서 (3)
「우리 인민군대는 인민을 위
한 군대이니만큼 절대로 애매
하게 인민을 해하는 법은 없
다. 인민이 죄가 있으면 인민
들앞에서 인민의 재판을 받을
것이요 인민이 죄가 없다면
물론 인민들앞에서 석방 될것
이요」
마침 팔치산이 잠깐 나간새
에 한가운데 테블에 자기고
앉아서 배루를 마시고 있는
장포에게 자기는 살피하는 여
자요 정보원이란 애매한소리니
집에 어림없을 두고왔으니 어
서 내보내라고 명하는 사정을
하엿는 것이다. 명애가 을때부
터 이상스러운 눈피로 슬쩍슬
적 쳐다보는 장포라는 자가
갑자기 점잖을 빼가면서 함경
도사투리로 이렇게 틀에박힌소
리를 지껄린다.
아까 그 팔치산이 이번에는
경찰관 중국사람 어린 중학생
여학생 어떤 은형지배인으로
있는 사람들七八인을 데리고
들어오니 모조리 총으로 위
협을 하고 나서 이름과 주소
를 적는다.
명애는 애매하게 정보원「이
해경이라고 적히고 정명애는
가명으로 적어놓았다. 그러자
이내 스키코타에 다 대위가지
고 종로서로 가서 아모랄도없
이 당장 유치장에 가두어버린
다. 밤새와 단검이 각 나오면

들어 한포대인데 같은 십만
원입니다」하는말을 들을때 우
리는 온저 그것이 상종일가루
는 고사하고 종가루라도 묶은
것이나 아난가을 의심해야하
고 근량이百元이라고하지만
그것이八十근이나九十근이
아닌지를 또 의심해야하고 그
분만아니라 만일 그 상점에서
저울을 가지고 달라보아서 사
실百元이되는 경우라면 그
저울에 무슨 논란이 있지한
는가를 또 의심해야할 처지일
가 합니다.
「이것은 다음회에 계속

서 명애의 기본을 들시 상하
게 한다.
한방에는 돈을 많이 가졌다
고 잡혀온 젊은이 손주가 경
관이라고 잡혀온 할머니 또
여학생 하나 명애까지 네사람
이었다.
젊은이는 적막이를 놓고 왔
다고 울고 있고 늙은이는 아
들이 잡히면 죽겠다고 울고
있다. 무더운 날이라 한편 구
석에서는 동네 지린내가 섞여
서 피어오르고 옆에서는 남자
들이 매맞는 소리가 들리고
가끔「아이고 아이고」하는 소
리에 이런데를 처음들어온 명
애는 전신에 소름이 끼치고
정신이 아득해진다.
「지옥이로구나!」
명애는 이런 생각이 나면서
조금전에 장포라는 자가 인민
군대는 인민을 위한 군대이라
인민을 해하는 법이 없다는것
이 빨간 거짓말이라는것이 금
방 들어나누나 하고 이를
악물고 아모것도 먹은것이 없
이 하루밤을 고박 새웠다.
시흥 파수원으로 간다고 나
섰든 명애는 어디서 오는지
총알이 뽕뽕 지나가고 그리고
앞서가는 청년이 그 총알에
맞았는지 팔에서 피가 똑똑
떨어지는 것을 보고 더 겁
마음이 없는 차에 전에 공장
에 가끔 와서 낮익은 어떤
청년이 명애를 보고 감작 놀

「아주머니 원 일입니다」
서 물어가십시오 위험해서 못
가십니다 그리고 한강에 가야
못 건너 가십니다 저마다 못
지 말고 야만 법칙을 하다
가 몇 사람 빠져죽었습니다.
어서 물어가십시오 부인들이야
일 없지요」
이말을 듣고 명애는 발길을
돌이켜서 집으로 가다가 중간
에 「라는 동창 친구네 집에
잠깐 물러보았다.」는 있고
집지키는 젊은이만 있는데 잠
간 앉아서 봉돈이의 말을 듣
다가 바깥 집으로 갔다. 집에
는 벌써 쇠를 잠그고 아무도
없다. 봉돈이와 함께한 부끄
고 장포로 가보았으나 공장
에도 문을 잠그고 아모도 없
었다.
명애는 집으로 와서 집안물
로 물러갔다.

衣料雜貨卸商

杉山商店

主 金永錫

熊本市河原町二番地
電話一〇六九番

衣料品都散賣

金村商店

主 金千石

熊本市河原町二番地
電話一九六五番

衣料品都散賣

光吉商會

主 孫三山

熊本市河原町二番地
電話一九七二番